

# FTA 이/슈/리/포/트

제16호\_2019. 12. 24

## 2019년 한·베트남 FTA 발효 5년, 농축산물 교역 동향

석준호·윤정현·명수환

### 요약

對베트남 농식품 수입·수출액은 평년대비는 대폭 증가(각각 88.4%, 47.1%)하였으나, 4년차('18년)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(각각 12.7%, 1.5%)함.

- 베트남의 수출 감소는 곡물 부분에서 두드러졌는데, 그 중에서도 쌀수입 감소폭이 컸음. 하지만 이는 베트남 MMA 낙찰 쌀 물량이 아직까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영향이라고 판단됨.
- 對베트남 부류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우,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곡물, 과일·채소, 가공식품, 축산물 수출은 증가함. 특히, 과일·채소 수출액은 딸기, 포도, 배, 기타과실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2.0% 증가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 베트남의 FTA의 농축산물 특혜관세 활용률은 4년차('18년)대비 감소한 데 반해,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(각각 2.9%p, 7.7%p)

-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은 6개 품목(닭고기, 권련, 기타음료, 과당, 라면)으로 수출규모가 큰 품목의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.
- 또한, 수출규모 1천만 달러 이상의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품목이라 하더라도,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(예. 닭고기(72.0%), 기타음료(67.0%), 라면(62.8%)과 배(65.2%).

# 01

## 한국·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<sup>1)</sup>

### 1.1.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('19)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2.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<sup>2)</sup> 대비 88.4% 증가, 4년차 대비 12.7% 감소

이행 5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.7%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.4%p 상승, 전년 대비 0.5%p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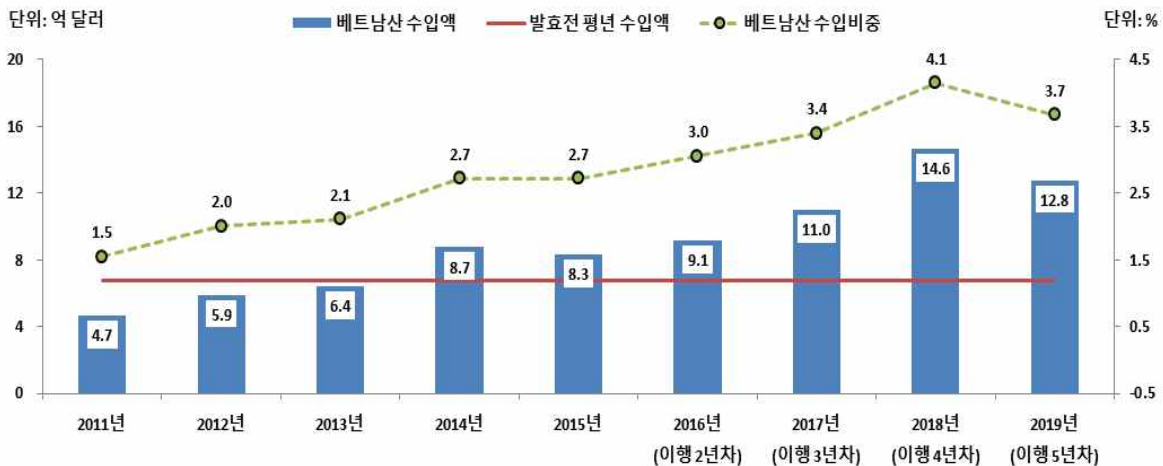
-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(억 달러):

8.3('15년) → 9.1('16년) → 11.0('17, 이행 3년) → 14.6('18년, 이행 4년) → 12.8('19년, 이행 5년)

-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(%):

2.7('15년) → 3.0('16년) → 3.4('17, 이행 3년) → 4.1('18년, 이행 4년) → 3.7('19년, 이행 5년)

〈그림 1〉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1) '11~'18년 수출입 자료는 연간자료이며, '19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치와 3개년도('16~'18년) 11월과 12월 수출입액 비중평균을 이용하여 '19년 11월 과 12월 수출입액 잠정치로 계산하였고,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'19년 수출입액 자료는 이 잠정치를 활용한 것임.  
 2) FTA 협정문상 FTA 이행연차는 FTA 발효 연도는 이행 1년차, 이행 2년차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정의됨. 2019년의 경우 한·베트남('15.12.20) FTA는 이행 5년차로 정의함.

### 곡물과 가공식품을 제외한 베트남산 모든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

곡물 수입액은 감자, 밀, 완두 등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품목인 대두박, 쌀, 타피오카 등이 감소함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9.1%, 전년('18년) 대비 70.3% 감소

- 주요 수입액 증가<sup>3)</sup> 품목은 기타식물성유박(2,420.3%), 감자(2,397.5%), 밀(526.2%), 타피오카 전분(409.1%), 완두(161.2%), 등임.
  - ※ 기타식물성유박 수입량(천 톤): 6.8('15년) → 21.0('16년) → 22.4('17년) → 26.1('18년) → 27.2('19년)
  - ※ 감자 수입량(천 톤): 0.1('15년) → 0.2('16년) → 0.5('17년) → 0.7('18년) → 0.8('19년)
  - ※ 밀 수입량(천 톤): 7.5('15년) → 7.5('16년) → 5.1('17년) → 4.5('18년) → 3.6('19년)
  - ※ 완두 수입량(천 톤): 0.1('15년) → 0.1('16년) → 0.2('17년) → 0.2('18년) → 0.1('19년)
-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대두박(△93.0%), 쌀(△82.6%), 타피오카(△44.3%) 등임.
  - ※ 아직 베트남이 우리나라 At에서 낙찰받은 쌀 MMA 물량이 아직까지 수입되지 않아, 수입물량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<sup>4)</sup>
  - ※ 대두박 수입량(천 톤): 0.9('15년) → 2.0('16년) → 0.001('17년) → 13.1('18년) → 0.0001('19년)
  - ※ 쌀 수입량(천 톤): 41.0('15년) → 11.0('16년) → 71.6('17년) → 137.6('18년) → 4.0('19년)
  - ※ 타피오카 수입량(천 톤): 75.2('15년) → 82.7('16년) → 76.0('17년) → 84.9('18년) → 74.0('19년)

가공식품 수입액은 주요 수입품목인 대두유, 에틸알코올, 견사, 캔디 등이 감소함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.9%, 전년('18년) 대비 10.8% 감소

-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대두유(△92.9%), 에틸알코올(△91.0%), 견사(△62.9%), 캔디(△31.5%), 커피(△26.2%) 등임.
-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커피조제품(274.7%), 계피(109.9%), 기타파스타(91.6%) 등임.

과일·채소류 수입액은 기타감귤류, 바나나, 기타과실(가공) 등 과실 및 기타 가공 과실과 기타채소, 당근, 오이, 캐슈넛 등 채소, 견과까지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22.0%, 전년 대비 14.3% 증가

-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기타감귤류(50,225.7%), 바나나(6,261.0%), 기타과실(가공: 395.2%), 기타채소(345.1%), 당근(281.0%), 오이(202.7%), 캐슈넛(신선·가공: 1,277.9%) 등임.

3) 증가 또는 감소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.

4) aT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, 베트남산 쌀에 대한 MMA 물량은 2019년에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.

- ※ 기타감귤류 수입량(천 톤): 0.01('15년) → 1.2('16년) → 3.5('17년) → 4.2('18년) → 2.8('19년)
- ※ 기타과실 수입량(천 톤): 24.6('15년) → 33.8('16년) → 31.5('17년) → 38.3('18년) → 47.9('19년)
- ※ 기타채소 수입량(천 톤): 0.9('15년) → 1.3('16년) → 2.1('17년) → 2.7('18년) → 3.0('19년)
- ※ 당근 수입량(천 톤): 4.6('15년) → 5.8('16년) → 4.8('17년) → 4.9('18년) → 6.6('19년)
- ※ 오이 수입량(천 톤): 5.6('15년) → 6.2('16년) → 5.8('17년) → 6.7('18년) → 7.2('19년)
- ※ 캐슈넛 수입량(천 톤): 14.7('15년) → 57.6('16년) → 95.1('17년) → 72.7('18년) → 119.9('19년)

- FTA 발효 이전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베트남산 신선(바나나, 망고 등) 및 가공(레몬, 자몽 등) 과일의 수입량이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

※ 한-ASEAN FTA에서 양허 제외 및 부분 감축되었던 바나나와 망고는 한-베트남 FTA에서 10년 철폐로 개정되어 관세가 매년 감축되고 있음.

※ 바나나 수입량(천 톤): 0.2('15년) → 0.9('16년) → 4.8('17년) → 7.2('18년) → 6.5('19년)

※ 바나나 관세율(%): 27.0('15년) → 24.0('16년) → 21.0('17년) → 18.0('18년) → 15.0('19년)

※ 망고 수입량(천 톤): 0.2('15년) → 0.4('16년) → 0.5('17년) → 0.7('18년) → 0.6('19년)

※ 망고 관세율(%): 27.0('15년) → 24.0('16년) → 21.0('17년) → 18.0('18년) → 15.0('19년)

※ 레몬 수입량(천 톤): 0.2('15년) → 0.1('16년) → 0.8('17년) → 0.4('18년) → 0.2('19년)

※ 자몽 수입량(천 톤): 0.03('15년) → 0.7('16년) → 0.6('17년) → 0.8('18년) → 0.5('19년)

축산물 수입액은 주요 수입품목인 젤라틴, 기타 양모 및 조수모 등의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43.6%, 전년 대비 4.3% 증가

- 축산물 수입액에서 기타 양모, 조수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77.6%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.

※ 기타 양모, 조수모 등 수입비중(%): 58.7('15년) → 63.9('16년) → 69.4('17년) → 84.4('18년) → 77.6('19년)

-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젤라틴(15,802.2%), 기타양모 및 조수모(376.8%), 육류수우프(149.0%) 등임.

※ 젤라틴(천 톤): 0.1('15년) → 0.1('16년) → 0.1('17년) → 0.2('18년) → 0.4('19년)

※ 기타양모 및 조수모 등(천 톤): 0.3('15년) → 0.3('16년) → 0.3('17년) → 0.5('18년) → 0.5('19년)

※ 육류수우프(천 톤): 0.2('15년) → 0.2('16년) → 0.2('17년) → 0.4('18년) → 0.3('19년)

-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(△96.4%), 뱀원피(△86.7%), 소원피(△85.8%) 등임.
- ※ 기타동물성유지(천 톤): 3.8('15년) → 2.2('16년) → 1.6('17년) → 0.3('18년) → 0.1('19년)
- ※ 소원피(천 톤): 5.6('15년) → 0.9('16년) → 1.3('17년) → 0.5('18년) → 0.5('19년)

〈표 1〉 베트남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		발효 후 이행				증감률	
	평년(A)	'15	2년차('16)	3년차('17)	4년차('18)(B)	5년차('19)(C)	발효 전 대비(C/A)	4년차 대비(C/B)
전체 합계	678	831	914	1,097	1,464	1,278	88.4	-12.7
농산물	333	344	340	429	486	403	21.1	-17.1
- 곡물	61	45	37	76	125	37	-39.1	-70.3
- 과일채소	62	114	146	160	175	200	222.0	14.3
- 가공식품	210	186	157	194	186	166	-20.9	-10.8
축산물	11	19	18	26	36	37	243.6	4.3
임산물	335	468	556	642	943	838	150.3	-11.1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〈표 2〉 베트남산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		발효 후 이행				증감률	
	평년(A)	'15	2년차('16)	3년차('17)	4년차('18)(B)	5년차('19)(C)	발효 전 대비(C/A)	4년차 대비(C/B)
통밥	68	138	147	193	362	274	300.6	-24.4
합판	46	70	129	162	230	220	374.1	-4.4
기타과실	18	48	54	48	67	91	395.2	36.6
칩	83	70	74	58	66	77	-6.4	16.8
캐슈넛	4	7	28	43	43	55	1,277.9	27.1
커피	71	55	54	75	58	53	-26.2	-9.2
기타 가구	29	46	46	43	51	52	81.4	1.8
침대	15	23	22	23	30	35	130.5	19.2
목탄	5	13	20	25	43	32	532.7	-24.9
식탁	15	21	23	28	35	32	111.2	-8.5
기타양모, 조수모등	6	11	12	18	30	29	376.8	-4.0
열대산제재목	10	11	16	21	25	28	189.7	8.4
타피오카	43	21	23	20	27	24	-44.3	-10.2
후추	22	40	35	30	18	16	-26.6	-10.0
커피조제품	4	4	7	9	11	14	274.7	27.4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품목은 발효 5년차('19년) 기준으로 정렬했으며,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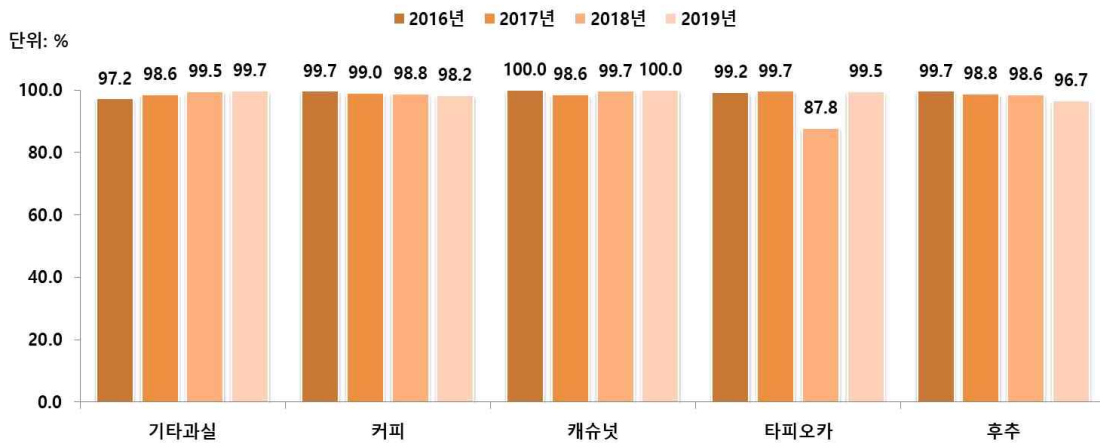
## 1.2.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<sup>5)</sup>

한·베 FTA 이행 5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3.6%로 이행 4년차(86.5%) 대비 2.9%p 감소

2019년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<sup>6)</sup>은 10.0억 달러이며, 그 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은 8.4억 달러임.

-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% 이상인 품목은 기타과실(99.7%), 커피(98.2%), 캐슈넛(100.0%), 타피오카(99.5%)와 후추(96.7%) 등임.
- 그 중에서 기타과실, 캐슈넛과 타피오카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각각 0.26%p, 0.33%p와 11.7%p 증가했으나, 커피와 후추는 각각 0.6%p와 1.9%p 감소

〈그림 2〉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



주: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  
 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5)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협정에 따라 양허된 전체 품목 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함.

6) 2019년 베트남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입액 자료는 '19년 1~10월 까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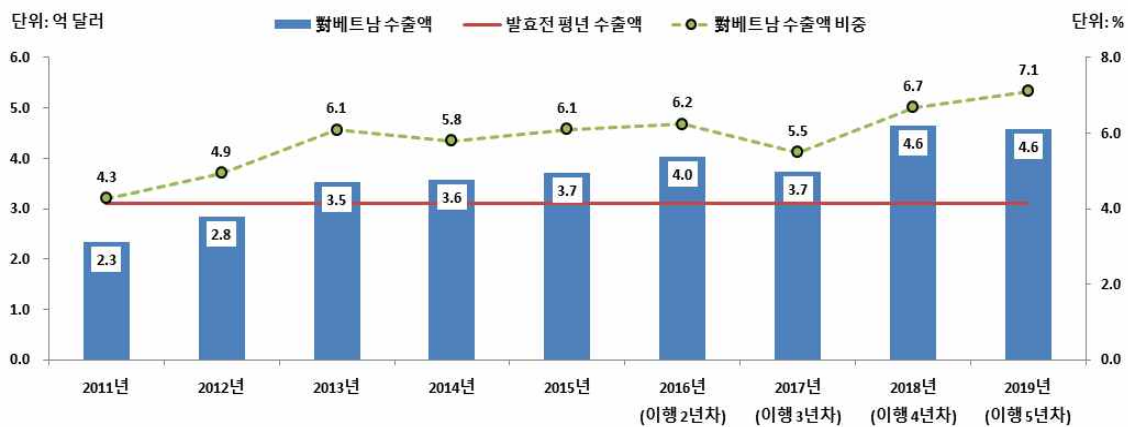
### 1.3.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('19)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4.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<sup>7)</sup> 대비 47.1% 증가, 4년차 대비 1.5% 감소

이행 5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對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7.1%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.8%p, 전년 대비 0.4%p 상승

-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(억 달러):  
3.7('15년) → 4.0('16년) → 3.7('17, 이행 3년) → 4.6('18년, 이행 4년) → 4.6('19년, 이행 5년)
-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비중(%):  
6.1('15년) → 6.2('16년) → 5.5('17, 이행 3년) → 6.7('18년, 이행 4년) → 7.1('19년, 이행 5년)

〈그림 3〉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을 부류별로 보면,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곡물, 과일·채소, 가공식품, 축산물 수출은 증가

과일·채소 수출액은 딸기, 포도, 배, 기타과실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2.0% 증가

-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딸기(70,254.0%), 포도(3,843.1%), 배(2,564.3%), 기타과실(1,575.2%), 사과(574.4%) 등임.

7) 한·베트남 FTA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 수입액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(올림픽 평균)을 의미함.

※ 딸기 수출량(천 톤): 0.001('15년) → 0.1('16년) → 0.2('17년) → 0.3('18년) → 0.9('19년)

※ 포도 수출량(천 톤): 0.04('15년) → 0.1('16년) → 0.2('17년) → 0.3('18년) → 0.3('19년)

※ 배 수출량(천 톤): 1.1('15년) → 2.4('16년) → 5.0('17년) → 9.0('18년) → 6.1('19년)

※ 경제성장과 함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베트남의 수입 신선과일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 더불어 한국문화 및 K-Food 인지도 향상과 농식품수출확대를 위한 국가주도적인 정책 지원(마케팅 지원,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,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등)은 딸기, 배, 포도 등의 신선과일 수출을 증가하는데 기여함. 또한, 교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요 창출 기반확보(이마트, 롯데마트 등)와 한국식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(박항서 효과 등) 등도 영향을 미침<sup>8)</sup>.

- 딸기: '16년 검역 타결, 품질(적당한 산미, 선명 빛 포장 우수), 높은 위생수준(호주산 바늘 딸기, 미국산 비위생적 딸기 등)가격경쟁력 확보, 수출품종 다변화(매향, 설향, 고하 등) 등으로 증가
- 배: 고급 선물용 대과 위주에서 가정 소비용 중·소과 수출 증가, 건강/기침 치료 목적 및 건강식품 이미지 확산 등으로 수출 급증
- 포도: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향상과 증산층 확대로 구매력 향상, 한국산 선호도 증가로 선물용 수요증가 등으로 수출 큰 폭 증가

축산물 수출액은 기타동물성유지, 동물의 건과 근, 소원피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78.8% 증가

-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(285.3%), 동물의 건과 근(236.9%), 소원피(146.3%), 닭고기(113.6%) 등임.

가공식품 수출액은 기타음료, 라면, 홍삼조제품, 과당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8.2% 증가

-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기타음료(1,132.2%), 라면(414.2%), 홍삼조제품(213.8%), 과당(205.5%), 혼합조제품(151.9%) 등임.
-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자당(△81.1%), 기타사료용조제품(△74.6%), 권련(△53.1%) 등임.

곡물 수출액은 FTA 발효 이전 수출이 거의 없었던 쌀, 보리, 땅콩, 기타곡물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9.6% 증가

-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쌀(2,124.2%), 보리(479.1%), 땅콩(331.6%), 기타곡물(260.7%), 밀(219.9%) 등임.

8) 베트남 신선과일 시장동향(코트라, 2018)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(농수산물유통공사, 2019)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함.



〈표 3〉 베트남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		발효 후 이행				증감률	
	평년(A)	'15	2년차('16)	3년차('17)	4년차('18)(B)	5년차('19)(C)	발효 전 대비(C/A)	4년차 대비(C/B)
전체 합계	311	371	403	374	464	457	47.1	-1.5
농산물	178	242	270	298	324	307	73.0	-5.3
- 곡물	7	13	13	6	25	10	39.6	-61.2
- 과일채소	9	10	17	26	36	41	382.0	13.4
- 가공식품	162	219	240	266	263	257	58.2	-2.6
축산물	61	80	72	37	78	108	78.8	38.9
임산물	73	50	61	40	61	42	-42.7	-32.4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〈표 4〉 베트남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발효 전		발효 후 이행				증감률	
	평년(A)	'15	2년차('16)	3년차('17)	4년차('18)(B)	5년차('19)(C)	발효 전 대비(C/A)	4년차 대비(C/B)
닭고기	22	31	22	3	27	47	113.6	74.6
혼합조제식품	18	24	28	28	34	44	151.9	30.1
관련	65	90	89	88	43	31	-53.1	-29.2
기타음료	2	5	12	19	27	29	1,132.2	8.9
과당	7	11	12	8	14	21	205.5	49.6
판지	4	4	7	15	17	18	390.7	9.2
라면	3	4	7	14	15	17	414.2	11.9
배	1	2	5	10	16	15	2,564.3	-9.3
기타임산물	60	37	45	14	15	13	-78.1	-13.9
조제분유	9	12	8	8	9	12	36.1	41.1
가죽	11	12	12	9	12	11	2.7	-9.3
면	2	3	2	4	5	10	531.0	103.4
홍삼조제품	3	5	5	6	8	10	213.8	25.9
딸기	0	0	1	2	4	8	70,254.0	130.0
소원피	3	4	1	0	3	6	146.3	135.6
커피조제품	5	6	4	5	8	6	24.9	-15.4
아이스크림	2	2	3	4	6	6	218.8	15.2
캔디	2	3	4	5	6	5	126.7	-11.8
기타양모, 조수모 등	4	4	5	4	3	5	11.1	42.8
비스킷	3	3	2	4	4	5	45.2	12.0
젤라틴	3	3	4	2	3	4	44.6	38.2
대두박	3	7	9	1	2	4	28.7	79.2
소주	1	3	3	4	6	4	205.4	-23.1
기타베이커리제품	5	5	3	3	4	4	-16.7	3.1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2) 품목은 발효 5년차('19년) 기준으로 정렬했으며,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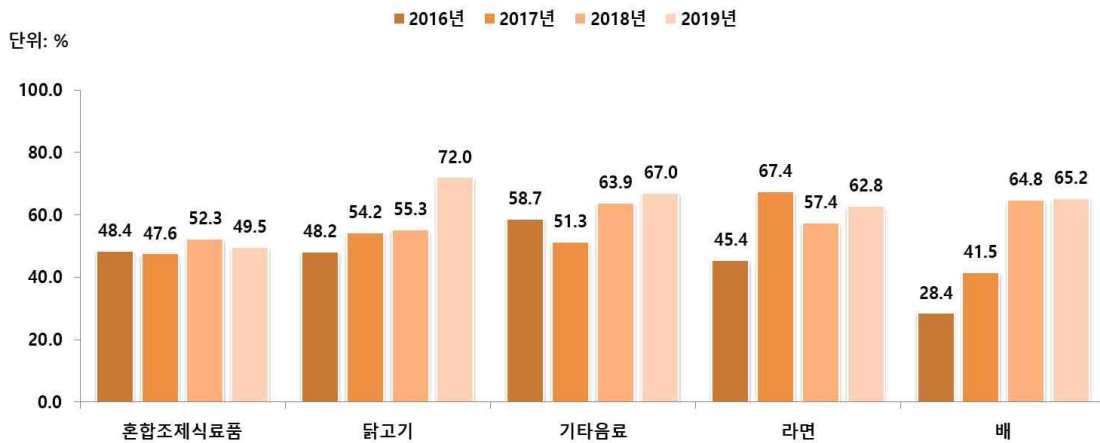
### 1.4.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<sup>9)</sup>

이행 5년차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6.5%로 이행 4년차(38.8%) 대비 7.7%p 증가

2019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<sup>10)</sup>은 4.1억 달러이며, 그 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1.9억 달러임.

-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품목은 닭고기 (72.0%), 기타음료(67.0%), 라면(62.8%)과 배(65.2%) 등이며, 혼합조제식료품은 49.5%로 나타남.
- 이 중 닭고기, 기타음료, 라면과 배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각각 16.7%p, 3.1%p, 5.4%p와 0.5%p 증가했으나, 혼합조제식료품은 2.7%p 감소

〈그림 4〉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



주: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9)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 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함.

10) 2019년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액 자료는 '19년 1~10월 까지임.

# 02

## 요약 및 시사점

對베트남 농식품 수입·수출액은 평년대비는 대폭 증가(각각 88.4%, 47.1%)하였으나, 4년차('18년)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(각각 12.7%, 1.5%)함.

이와 같은 결과는 한·베트남 FTA 이행으로 인하여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, 이행 5년차에 교역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임.

- 베트남산 농식품 수입의 경우, 곡물 수입액은 감자, 밀, 완두 등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품목인 대두박, 쌀, 타피오카 등이 감소함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9.1%, 전년('18년) 대비 70.3% 감소함. 특히, 베트남 쌀 수입이 감소액이 두드러졌는데, 이는 아직 필리핀이 우리나라 At에서 낙찰 받은 쌀 MMA 물량이 아직까지 수입되지 않아 수입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對베트남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우,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을 부류별로 보면,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곡물, 과일·채소, 가공식품, 축산물 수출은 증가함. 특히, 과일·채소 수출액은 딸기, 포도, 배, 기타과실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2.0% 증가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 베트남의 FTA의 농축산물 특혜관세 활용률은 4년차('18년)대비 감소한 데 반해,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(각각 2.9%p, 7.7%p)

하지만, 베트남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'19년 현재 83.6%,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46.5%로 절대적인 활용률 차이는 2배 가까이 나는 실정임.

-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품목은 닭고기, 권련, 기타음료, 과당, 라면과 배의 6개 품목으로 수출규모가 큰 품목의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.
- 또한, 수출규모 1천만 달러 이상의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품목이라 하더라도,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(예. 닭고기(72.0%), 기타음료(67.0%), 라면(62.8%)과 배(65.2%).

# FTA 이슈리포트

	석준호 부연구위원	061-820-2364	junhoseok@krei.re.kr
내 용 문 의	윤정현 연구원	061-820-2119	jhyoon@krei.re.kr
	명수환 연구원	061-820-2040	swanmyeong@krei.re.kr

※ 「FTA 이슈리포트」는 국내·외 FTA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
※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fta.krei.re.kr>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FTA 이슈리포트 제16호

**2019년 한·베트남 FTA 5년, 농축산물 교역 동향**

※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※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
